

### 웃을 수 없는 사람들

이삭이 태어났어도 웃을 수 없는 사람이 한 명 있다. 이스마엘을 낳은 여종 하갈이다. 하루가 다르게 자라는 이삭을 볼 때 마다 하갈의 마음은 불안했을 것이다. 어미의 마음도 모르는지 결국 사건이 생긴다. 이삭이 젖을 떼던 날 열린 잔치에서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모습을 사라가 목격한 것이다.

**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**

**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**

**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/ 창세기 21:9-10**

사라는 누가 누구의 아들인지 분명하게 구별한다. ‘내 아들’은 오직 이삭 뿐이었다. 아브라함의 자식은 맞지만 내 자식은 아니었다. 어디까지나 ‘종의 아들’이었다. 사라의 요구사항은 분명했다. ‘내쫓으라!’. 아브라함에게는 근심이 시작되었다.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도 자신의 아들이었다.

**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/ 창세기 21:11**

이제는 아브라함도 웃을 수 없게 되었다. 하갈도, 이스마엘도, 아브라함도 웃지 못했다. 사라와 하갈은 아브라함을 사이에 두고 멸시와 학대를 주고 받은 사이였다. 이삭이 태어나고 가문의 후계자가 있는 마당에 이스마엘의 잘못은 사라에게 복수의 기회가 되었다.

**사라가 네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**

**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네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**

**사라가 네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/ 창세기 21:12**

안절부절 근심하는 아브라함을 향한 위로의 말씀이라고만 생각해서는 안된다.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. 이스마엘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기억해보자. 애초에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사라가 이르는 말을 다 들어서 태어난 아이였다. 가나안에 들어온지 십 년. 아내 몰래 여자를 두겠다는 것도 아니고, 아내가 직접 권한 일인데다 아이를 낳을수 있다면 그것도 마다할 일이 아니었다. 그래서 사라가 하는 말을 다 들었다. 사라의 말을 들어서 태어나게 된 아이를 이제 사라의 말을 들어서 내쫓게 되었다.

**사라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**

**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람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/ 창세기 16:2**

**아브라함의 잘못도 책임지시는 하나님**

차마 기다리지 못하고 엉뚱한 자식을 낳은 것은 아브라함이었다. 그러나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아들이었고 무력한 아브라함 대신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돌보셨다. 사라를 멸시하다가 쫓겨난 하갈을 돌보실 때 이미 약속하셨다. 그래서 이름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뜻의 이스마엘이었다.

이른 아침, 아브라함은 하갈의 어깨에 얼마간의 양식과 물을 메워주었다. 이것이 마지막 인사이자 남자 아브라함이 해줄 수 있는 전부였다. 이스마엘을 데리고 나간 하갈은 광야를 방황했고 물이 떨어지자 이스마엘이 먼저 지쳤다.

**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차마 보지 못하겠다 하고**

**화살 한 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 내어 우니 / 창세기 21:16**

하갈이 아이를 관목 덩굴 아래 두었다. 죽어가는 모습을 볼 수 없어서였다. 화살 한 대 쏘아 날릴 정도로 거리를 두고 앉아 울기 시작했다. 이스마엘도 멀리서 어머니를 보며 울었다. 어머니와의 거리는 어떻게 해도 좁혀지지 않았다.

**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**

**하갈아 무슨 일이나 두려워하지 말라**

**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네 손으로 붙들라**

**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/ 창세기 21:17-18**

하갈은 그녀의 생애에서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자가 전하는 메시지를 듣는다. 하나님께서 들으셨으니 아이를 포기하지 말고 가서 붙들라는 말씀이었다. 이 아이는 장차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!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다. 비록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라의 말을 들어서 낳게 된 아들이지만, 지금은 사라의 말을 듣고 쫓겨났지만, 그도 아브라함의 아들이라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돌보신다.

**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네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/ 창세기 21:13**

소년 이스마엘에게 화살 한 바탕 거리에 어머니를 두고 무력하게 울기만 했던 경험은 쉽게 잊혀지지 않는 것이었다. 이 때의 무력감을 씻기라도 하듯 이스마엘은 커서 활쏘는 자가 되었다. 절대 닿을 수 없었던 그 거리를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게 화살을 쏘아 날리는 사람이 되었다.